

제31회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

# 축 사



2021. 11. 2.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2개 변호사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오늘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를 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는 1990년 설립된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와 문화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변호사들 사이의 중요한 국제회의로 발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회의의 창립과 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고, 코로나  
19 유행 속에서도 회의를 준비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라는 상황에서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영역에서도 평소와는 다른 비상한 대처 방법

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도, 일부는 새로운 일상의 규칙으로 남아 있을 것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적법한 절차적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헌법질서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법의 지배’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늘 가까이하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역할과 소임은 막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이 적시에 적당하게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게 될 때, 비로소 ‘법의 지배’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단체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을 한발 앞서 확인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법률적·제도적 해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에서의 변호사단체의 활동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의 준비’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적 인접성이 있고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의 변호사단체들이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들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고 사유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역 내 경제적 상호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으며, 사회적·문화적 교류도 양적·질적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며, 법치주의 수호와 인권 보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더 나은 삶과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각 나라의 변호사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가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국적과 관계없이 보호하고, 공평하게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헌법재판소는 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회의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동·서양의 전통과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역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서울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누릴 날이 곧 오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회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아시아변호사 단체장회의의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